

CONTENTS

2010 가을호 Vol. 18호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인

김태현

실무위원

마경희 · 민현주 · 신선미 · 전기택
이미정 · 이선주 · 홍승아

편집인

김은경

기획 및 편집

이경식

디자인 및 인쇄

대한정보인쇄(주)
TEL. (02)2632-0416~8

젠더리뷰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원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002 편집자의 글 | 김은경

기획특집

G20와 여성

004 G20 서울 정상회의의 의미와 특징 | 이태주

014 젠더와 개발 그리고 G20 | 조영숙

이슈브리프

024 생활속 느낌의 미학 슬로 시티 : 도심형 올레를 통한 여성성의 구현
| 김영국

032 낙태, 그녀의 어렵고 힘겨운 결정 | 이윤상

038 공직사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현황 및 과제 | 정만석

044 아동성폭력 현황 및 피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방안
| 윤덕경

051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사각지대 | 김영택

058 옷자고 보는 예능 프로그램 속, 죽자고 까칠해질 수밖에 없는 은근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현실 | 김지은

국제리뷰

066 UN 여성기구 단일화의 의미와 과제 :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신혜수

연구노트

074 녹색성장, 그린코리아 2010 국제학술회의 | 유희정

080 아태개발협력포럼 : 개발과 젠더 | 김은경

082 글로벌 시대의 성별영향평가, 어디까지 왔나? | 김경희

여성정책동향

086 국내여성정책동향 (2010년 3/4분기) | 문희영

092 2010 연구과제 소개

097 KWDI 동정

상시안내정보

100 여성연구 · GSPR · 젠더리뷰 투고 안내

103 자료이용서비스 안내



김 은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외협력·정보팀장

한국은 2010년 11월 G20 정상회의 개최와 2011년 제4차 원조의 효과성을 위한 고위급 회담(HLF-4)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있다. 이 회의의 주제는 새천년 개발목표(MDG)의 달성을 위한 개발(development)에 맞춰져있고, 각 국가가 회의를 개최하면서 개발의 세부이슈를 다루어왔다. 또한 이와 맞물려서 유엔 여성기구의 통합이 이루어져 내년 1월부터 UN Women가 출범할 예정이다.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젠더 이슈를 다루지 않고 이를 수 없으며, 이러한 요구들은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본 가을호에서는 기획특집으로 G20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서울정상회의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G20회의를 비롯한 개발이슈에서 왜 젠더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담았다. 이와 연결되는 코너는 국제리뷰로서, UN 여성기구 단일화에 대한 의미와 한국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최근의 이슈를 다루는 이슈브리프에서는, 도심형 올레, 둘레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Slow city에 대한 소개와 단상을 실었고, 2010년 상반기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낙태 찬반논쟁에 대한 내용, 아동 성폭력 현황 및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방안의 내용을 담았으며, 그밖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과 여성의 문제를 돌아보았다. 젠더관점의 미디어분석에서는 공중파 예능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구태의연한 성별 고정관념이 시청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반복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짚어보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하반기에 풍성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특히 9월에 실시된 3개의 국제학술회의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녹색성장과 그린코리아 2010, 아태개발협력포럼: 개발과 젠더, 글로벌시대의 성별영향평가이다.

마지막으로 편집자의 글을 빌어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아태개발협력포럼을 계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1년 출범하는 UN Women의 핵심 기관인 UNIFEM과 MOU를 체결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27년 만에 유엔기구와 맺는 첫 MOU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좀더 면밀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아태지역에서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까지 국내에 기반하고 있던 여성정책연구가 국제사회로 관심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